<h1>나 혼자만 레벨업-34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fa69fcc7be0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34화</p>  
<p>그리고 잠시 뒤.</p>  
<p>"읍, 읍, 읍!"</p>  
<p>멀지 않은 곳에서 죄수 한 명이 버둥거리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. 손발이 밧줄로 묶여 있고,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. 죽기 전 강태식이 말했던 그대로였다.</p>  
<p>"가까운 곳에 강간범을 묶어 두었다. 그녀의 아버지가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여 달라고 부탁해서 마지막에 처리할 생각이었지."</p>  
<p>강태식은 그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었다.</p>  
<p>죄수는 진우를 보고 더 심하게 몸부림쳤다.</p>  
<p>빨리 풀어 달라는 몸짓 같았다.</p>  
<p>"읍! 읍! 읍!"</p>  
<p>자세히 보니 아까 전 주희에게 추파를 던졌던 그 녀석이었다.</p>  
<p>진우가 죄수 입에 물려 있는 재갈을 벗겨 내자, 죄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몰아쉬었다.</p>  
<p>"헉, 헉, 헉! 강태식, 그 미친놈이, 그 새끼가 다 죽였어, 다 죽였다고! 뭐야? 그 새낀 간 거야? 너 옷에 피는? 너도 당한 거냐?"</p>  
<p>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았다.</p>  
<p>보스가 있는 방향이었다.</p>  
<p>죄수의 목소리가 급해졌다.</p>  
<p>"일단 이것 좀 빨리 풀어 줘. 강태식이 오기 전에 달아나야 돼. 이 씨발, 줄에 마력이 담겨 있어서 힘으로 끊을 수가 없다고! 장비는 가지고 있지? 너 왜 말이 없냐? 내 말 안 들리냐?"</p>  
<p>협회 말단 헌터 따위가 계속 자기 말을 무시하자 죄수는 자기 처지도 잊어버리고 인상을 쓰기 시작했다.</p>  
<p>내내 무표정하던 진우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.</p>  
<p>"요 앞에 보스가 있어."</p>  
<p>"뭐?"</p>  
<p>죄수의 얼굴에 물음표가 떠올랐다.</p>  
<p>"일반적인 D급 던전 보스보다 센 놈 같은데, 그놈이 어떤 패턴으로 공격할지 좀 궁금하거든."</p>  
<p>듣고 있던 죄수가 참지 못하고 신경질을 냈다.</p>  
<p>"그게 무슨 소리야, 씨발!"</p>  
<p>진우는 태연하게 하고 싶은 말만을 계속했다.</p>  
<p>"그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. 니가 강간한 여자애 기억하냐?"</p>  
<p>"뭐? 누굴 말하는 건데? 너 피해자 가족이냐?"</p>  
<p>진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.</p>  
<p>방금 맞다, 아니다가 아니라 누구인지부터 물었다.</p>  
<p>한두 명을 건드렸던 게 아니라는 소리다.</p>  
<p>헌터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괴물이 될 수 있다.</p>  
<p>이 녀석은 그 힘을 여자들을 희롱하는데 써 온 거다.</p>  
<p>이걸로 결심을 굳혔다.</p>  
<p>진우는 죄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.</p>  
<p>"확인했으니 됐다."</p>  
<p>"뭐? 읍, 읍!"</p>  
<p>죄수가 뭐라고 지껄이기 전에 진우는 바로 녀석의 입을 막아 버렸다.</p>  
<p>그리고 발목을 잡고서는 보스가 있는 방으로 천천히 걸어갔다.</p>  
<p>"읍! 읍! 읍!"</p>  
<p>죄수는 끌려가며 악을 썼다.</p>  
<p>부릅뜬 양쪽 눈에 실핏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.</p>  
<p>놈의 필사적인 발버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, 진우는 기어이 놈을 보스방까지 끌고 갔다.</p>  
<p>"읍! 읍!"</p>  
<p>보스방에는 살아 있는 인간의 내장을 좋아한다는 홉고블린들이 무리를 짓고 있었다.</p>  
<p>"읍! 읍! 읍!"</p>  
<p>죄수는 진우가 무엇을 하려는지 눈치챘다.</p>  
<p>그는 홉고블린 무리를 보고서 울부짖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. 입고 있던 바지가 노랗게 젖어 들어갔다.</p>  
<p>"후우."</p>  
<p>심호흡을 한 번 한 진우는 죄수를 홉고블린 무리에게 던져 버렸다.</p>  
<p>"으으으읍-!"</p>  
<p>"끼기기긱."</p>  
<p>"끼힛."</p>  
<p>"끼이익!"</p>  
<p>싱싱한 생고기 냄새를 맡은 홉고블린들이 일제히 죄수에게 달려들어 뱃가죽을 물어뜯기 시작했다.</p>  
<p>"으으읍! 읍! 읍!"</p>  
<p>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죄수의 눈에서 실핏줄이 하나둘 터져 나가며 눈 전체가 붉게 물들었다.</p>  
<p>"으으읍... 으으..."</p>  
<p>죄수가 의식을 잃어 가는 동안에도 홉고블린들은 쉴 새 없이 이빨을 놀렸다.</p>  
<p>구역질 나는 괴물들에게 산 채로 뜯어먹히는 기분은 어떨까?</p>  
<p>진우는 미간을 찡그리며 보스를 찾아 안쪽을 두리번거렸다.</p>  
<p>'저기 있네.'</p>  
<p>보스로 보이는 거대한 홉고블린이 안쪽 구석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. 부하들이 미끼에 정신이 팔려 보스 곁을 비운 지금이 절호의 기회였다.</p>  
<p>'질주!'</p>  
<p>홉고블린들 사이를 순식간에 지나친 진우가 홉고블린 보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.</p>  
<p>"끼엑!"</p>  
<p>홉고블린 보스가 놀란 눈으로 급히 몸을 일으켰지만 자리에서 채 다 일어나기도 전에 놈의 머리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.</p>  
<p>툭.</p>  
<p>데굴데굴.</p>  
<p>띠링!</p>  
<p>[던전의 주인을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'아, 그러고 보니.'</p>  
<p>홉고블린 보스의 목을 떨어뜨린 진우가 깜박 잊고 있었던 룬석의 존재를 떠올렸다.</p>  
<p>'미끼로 유인할 필요 없이 그냥 은신 스킬을 배워서 접근했어도 됐겠는데?'</p>  
<p>진우는 이제 사람의 형체라고 말하기도 힘든 죄수의 흔적을 돌아보며 끌끌 혀끝을 찼다.</p>  
<p>그래도 동정심은 전혀 들지 않지만.</p>  
<p>'뭐, 어쨌든...'</p>  
<p>작전은 성공이었다.</p>  
<p>5.톱니바퀴</p>  
<p>대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홉고블린들을 처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.</p>  
<p>"키익!"</p>  
<p>"키아악!"</p>  
<p>"캭!"</p>  
<p>홉고블린들은 진우를 피해 도망 다니다가 순식간에 정리됐다.</p>  
<p>"키약!"</p>  
<p>마지막 놈을 잡았을 때 기분 좋은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'또 올랐네?'</p>  
<p>의외의 성과에 진우의 얼굴이 밝아졌다.</p>  
<p>진우는 피를 말끔히 털어 낸 '카사카의 독니'와 홉고블린 사체에서 챙긴 마정석들을 인벤토리에 집어넣고서 상태창을 불러냈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이름: 성진우</p>  
<p>레벨: 27</p>  
<p>직업: 없음</p>  
<p>칭호: 늑대학살자</p>  
<p>HP: 5,114</p>  
<p>MP: 548</p>  
<p>피로도: 0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72 체력: 43 민첩: 82 지능: 39 감각: 69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5)</p>  
<p>물리 데미지 감소: 20%</p>  
<p>[스킬]</p>  
<p>패시브 스킬: (알 수 없음) Lv.MAX, 근성 Lv.1</p>  
<p>액티브 스킬: 질주 Lv.1, 살기 Lv.1</p>  
<p>[착용한 아이템]</p>  
<p>파수꾼의 목걸이(A)</p>  
<p>어느덧 레벨이 30에 가까워져 있었다.</p>  
<p>던전 입구에서 고블린들을 상대할 때만 해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홉고블린 대장을 잡아 1업, 홉고블린 졸개들을 잡아 1업, 합쳐 레벨을 2개나 올렸다.</p>  
<p>강한 놈들이 전부 보스방에 모여 있었던 게 행운이었다.</p>  
<p>'아니, 행운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가?'</p>  
<p>세 개의 갈림길과 보스방의 난이도.</p>  
<p>낮은 등급의 헌터들이 고블린을 잡던 자신감으로 무턱대고 보스방에 발을 들였다면 홉고블린의 갑작스런 등장에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었다.</p>  
<p>홉고블린은 고블린과 달리 그리 만만한 녀석들이 아니었다.</p>  
<p>'고블린이 등장하는 던전에서 간혹 홉고블린을 만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...'</p>  
<p>이렇게 홉고블린들이 무리를 짓고 있는 일은 드문 편이니까.</p>  
<p>던전 안에서는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.</p>  
<p>누구에게는 행운일 수 있는 상황이 누구에게는 절망적으로 비칠 수 있다.</p>  
<p>강한 힘만이 위험들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다. 그래서 진우는 더 강해지고 싶었다.</p>  
<p>던전에서의 생존도 생존이지만 만약 어머니께서 입원해 계신 병원 근처에서 던전 브레이크라도 일어난다면?</p>  
<p>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마수들에게 습격당한다면?</p>  
<p>아니, 꼭 마수들만이 문제가 아니다.</p>  
<p>헌터는 이미 마수 못지않게 위험한 존재였다.</p>  
<p>기관들이 관리한다고 해도 거기엔 분명 한계가 있었다.</p>  
<p>스스로를 지킬 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했다.</p>  
<p>'헌터가 강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.'</p>  
<p>하지만 자신에게는 한계가 없었다.</p>  
<p>능력치를 올리고 아이템을 갖추며 이론상 무한히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. 그리고 오늘 강해질 방법 하나가 더 추가됐다.</p>  
<p>바로 룬석!</p>  
<p>진우는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룬석을 꺼냈다.</p>  
<p>아이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룬석의 정보가 홀로그램 글자로 떠올랐다.</p>  
<p>[룬석:은신]</p>  
<p>룬석을 부수면 스킬이 흡수됩니다.</p>  
<p>모르는 사람 눈에는 이상한 글자가 새겨진 조약돌에 불과하지만, 헌터라면 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군침을 홀릴 만한 물건이었다.</p>  
<p>상급 헌터는 자신이 쓰고, 하급 헌터는 상급 헌터에게 팔면 되니까.</p>  
<p>특히 '은신'처럼 희귀한 스킬이 담긴 룬석은 큰돈이 된다. 정식 경매에 내놓으면 최소한 수십억 이상, 암시장에서는 그 몇 배를 받을 수도 있었다.</p>  
<p>암시장에서 더 비싼 이유는 단 하나.</p>  
<p>누가 어떤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 공식적인 기록이 전혀 남지 않기 때문이었다.</p>  
<p>숨겨진 스킬이 있다는 건 강력한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았다.</p>  
<p>'강태식이 은신을 숨기고 있었듯이.'</p>  
<p>감각 스탯이 높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뒤를 내주고 말았으리라.</p>  
<p>그렇게 생각하면 오싹했다.</p>  
<p>'일단 판매는 제외하자.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으니까.'</p>  
<p>당장 눈앞의 금전적 이득에 현혹되지 말자.</p>  
<p>지금은 강해지는 것이 우선.</p>  
<p>활용 가치가 높은 희귀 스킬 '은신'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.</p>  
<p>"이 돌멩이 하나가 집 몇 채, 아니 빌딩 몇 채 가격이라니."</p>  
<p>진우는 예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꿨을 일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.</p>  
<p>손에 힘을 주자 룬석이 가볍게 부서졌다.</p>  
<p>콰직.</p>  
<p>금이 간 룬석의 틈새에서 흘러나온 붉은 기운이 온몸을 천천히 휘감기 시작했다.</p>  
<p>마치 회복 마법을 받을 때처럼.</p>  
<p>색깔만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었다고 할까.</p>  
<p>어쨌든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.</p>  
<p>주변을 맴돌던 붉은색 기운이 자연스럽게 코를 통해 폐 속으로 스며들자 몸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.</p>  
<p>곧 익숙한 기계음이 울렸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['스킬: 은신'을 배웠습니다.]</p>  
<p>['스킬: 은신'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]</p>  
<p>'좋아!'</p>  
<p>스킬을 성공적으로 흡수했다.</p>  
<p>룬석을 사용한 스킬 습득은 이번이 처음이라 긴장했었는데, 생각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끝났다.</p>  
<p>'이제 은신을 쓸 수 있는 건가?'</p>  
<p>희귀 스킬을 배웠다는 성취감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나?</p>  
<p>진우는 바로 스킬을 시전했다.</p>  
<p>'은신.'</p>  
<p>생각과 동시에 몸이 스르륵 자취를 감추었다.</p>  
<p>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 전부 투명해졌다.</p>  
<p>코앞에 있는 손이 보이지 않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.</p>  
<p>'이러면 어떻게 되려나?'</p>  
<p>떠오른 김에 단검을 불러내 보았다.</p>  
<p>그러자 손에 무언가 쥐어지는 느낌이 들었다.</p>  
<p>신기하게도 느낌만 들었을 뿐 보이진 않았다.</p>  
<p>'과연...'</p>  
<p>강태식이 들고 있던 나이프처럼 '카사카의 독니'에도 은신이 적용됐다.</p>  
<p>역시나 강태식의 나이프가 특이했던 것이 아니라 스킬의 힘이었다.</p>  
<p>'은신이 어디까지 적용되는 거지?'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